



지스트(광주과학기술원) 보도자료

<http://www.gist.ac.kr>

보도 일시

배포 즉시 보도 부탁드립니다.

보도자료

홍보팀 김효정 팀장

062-715-2061 / 010-3644-0356

담당

홍보팀 이나영 선임행정원

062-715-2062 / 010-2008-2809

자료 문의

생명과학부 김재일 교수

062-715-2494

지스트 생명과학부 김재일 교수

창업 기업 '애니젠' ,

「소재·부품·장비 강소기업 100」 선정

- 애니젠(주), '소부장 강소기업 100'에 포함된 유일한 제약·바이오기업
- 김재일 교수, 교내 벤처로 2000년 '지스트 교수 창업기업 1호' 애니젠 설립
광주전남권 최초 바이오 벤처 기업으로 펩타이드 바이오 소재 극산화에 성공

□ 광주과학기술원(총장 김기선, 지스트) 생명과학부 김재일 교수가 창업한 애니젠(주)*이 「소재·부품·장비 강소기업 100 프로젝트」의 최종 55개사에 선정되었다.

* 애니젠(ANYGEN·대표 김재일)은 지스트 생명과학부 김재일 교수가 지난 2000년 설립한 교수 창업 기업으로, 지스트 제1호 창업기업이자 바이오 벤처기업이다. 애니젠은 펩타이드 바이오소재(산업용·의약품) 및 아미노산·펩타이드 기반의 향암, 향당뇨 및 진통 등의 글로벌 혁신 신약을 개발하는 바이오소재 전문회사로서 주요 사업은 펩타이드 바이오 소재 및 아미노산 기반 향암, 향당뇨 등 글로벌 혁신 신약 개발이다.

○ 중소벤처기업부(장관 박영선)는 2019년 12월 9일 소재·부품·장비 분야 기술 자립도를 높이고 미래 신산업 창출에 기여하기 위해 「소재·부품·장비 강소기업 100 프로젝트*」의 최종 선정 결과를 발표하였다.

* 강소기업 100은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소재·부품·장비 전문기업육성 로드맵인 '스타트업 100, 강소기업 100, 특화선도기업 100프로젝트'의 하나이다.

□ 강소기업 100은 총 1064개사가 신청한 가운데 1차 서면평가, 현장평가·기술평가, 대국민 공개평가를 거쳐 최종 55개사가 선정되었으며, 이번에 선정된

55개사 기업은 공개 평가방식과 국민심사배심원단의 참여를 통해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였다.

- 분야별로 기초화학(6개사), 자동차(7개사), 기계(8개사), 디스플레이(8개사), 전기전자(16개사)에서 선정되었으며, ‘소재·부품·장비 강소기업 100’에 선정된 기업 중, 제약·바이오 관련 기업으로는 기초화학 분야의 '애니젠'이 유일하다.

□ 애니젠은 장성 나노바이오센터에 위치하고 있으며, 독자적인 펩타이드 합성 기술을 기반으로 의학용, 연구용, 화장품용 펩타이드(API) 생산과 국제 제약 기업, 바이오 벤처기업 등에 신약 임상 위탁생산을 하고 있다.

- 펩타이드 원료의약품 제조 및 신약 개발에 매진한 결과, 6개 제품에 대한 품목 하가를 받았고 2016년에는 독자적인 펩타이드 바이오 소재 및 신약 개발 기술력을 바탕으로 코스닥 시장에 상장되었다. 2018년도 7월에는 충북 오송 과학단지에 비행암제 생산라인인 ‘애니젠 펩타이드 팜 오성’을 준공하며 사업을 확장했다.

- 또한 최근 식품의약품안전처(MFDS)로부터 우수제조시설(GMP) 인정을 받기 위한 현장 실태조사를 받았으며, 올해 초에 그 결과가 나올 예정이다. 오송 공장이 우수제조시설 인증을 획득하게 되면 제조/생산라인의 확장과 함께 펩타이드 원료의약품과 신약개발 임상용 펩타이드에 있어 괄목할만한 매출 성장세가 가시화 될 전망이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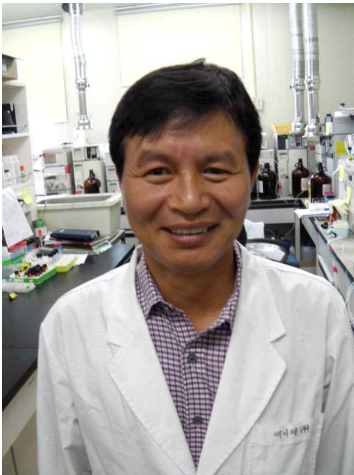
□ 애니젠의 대표이사인 김재일 교수는 “올해에도 펩타이드 원료의약품 생산과 신약 임상 위탁생산, 혁신 신약개발에 총력을 기울일 예정”이라면서, “애니젠은 국내 유일의 GMP인증 펩타이드 전문기업에서 나아가 신약개발 임상용 펩타이드의 대량생산 및 펩타이드 혁신 신약을 개발하는 글로벌 펩타이드 전문기업으로 거듭나겠다”고 포부를 밝혔다.

□ 한편, 강소기업 100에 선정된 기업들에는 빠른 기술혁신과 사업화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R&D, 벤처투자, 사업화 자금, 연구인력, 수출, 마케팅 등 전 주기에 걸쳐 5년간 최대 182억원이 지원된다. <끝>

[사진설명]



▲ [사진 1] 애니젠 오송공장



▲ [사진 2] 지스트 생명과학부 김재일 교수